

# “태풍 지나간지 언젠데”... 복구공사 하세월

태풍 영향으로 소나무 쓰러져 울레 7코스 탐방로 시설 파손 한달여 지났지만 복구 안돼 시 “곧 정비... 불편 최소화”



동백낭굴 인근 울레 7코스에 쓰러진 소나무로 인해 파손된 탐방로 시설. 이태윤기자

이달 초 제주를 강타한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소나무가 쓰러지고 탐방로 데크시설이 파손된 제주울레 7코스 일부 구간에 대해 행정의 정비·복구가 늦어지며 탐방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울레7코스는 외돌개 황우지해안 등 해안절경이 뛰어나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지만 한 달이 다돼 가도록 쓰러진 소나무와 파손된 탐방로 데크 시설에 대한 정비·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특히 소나무가 쓰러지며 탐방로를 덮쳐 데크시설이 파손된 곳도 2곳 가량 있었지만, 파손된 데크시설 주변에는 안전펜스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탐방객들의 안전이 우려됐다. 이 곳에서 만난 탐방객 장모(52)씨는 “해안절경이 아름답다고 해서 울레7코스를 찾았는데 쓰러져 고사한 소나무가 방치돼 있어 흉물스럽다”며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관광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이번 주 중 현장에 방문해 꺾어진 소나무 등을

정비하고 파손된 데크시설에 대한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귀포시에 따르면 10월 초 제주를 통과한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울레7코스 일대의 소나무 대부분이 쓰러지고 꺾이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소나무가 쓰러지면서 탐방로를 덮쳐 데크시설이 파손됐으며 탐방로를 덮친 소나무는 현장에서 토막 낸 뒤 긴급 정비를 실시했다. 이후 시는 소나무 정비와 탐방로 데크 시설에 대한 복구작업에 필요한 자재 등을 수급했으며 이번 주 중 정비·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정비·복구와 관련해 자재 등을 수급하며 작업이 늦어진 것은 이번 주 중 쓰러진 소나무와 데크 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이 외에도 정비가 필요한 탐방로에 대해 보수를 진행해 탐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로 248개소 해제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내달 14일까지 주민열람 실시

제주시가 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 도로 542개소 가운데 지나친 경관훼손과 지장물 과다 분포 등으로 도로 개설이 어려운 248개소는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내 주요 교통축을 형성하고 있어 교통체계 유지에 필요한 경우와 현재 사업 추진 중이거나 용도지역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121개소는 존치하고 소유권 확보 완료 도로 및 이미 개설된 도로 46개소도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폐지하고, 기존 현황도로를 최대한 활용한 도로선형 정비를 통해 획일적인 격자형 도시계획의 형태를 탈피하고 있다.

또 용도지역의 상황을 통한 시가지확장은 최소화 하되, 불합리하게 결정된 용도지역·지구 등의 정비를 통해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녹지지역 등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성장관리방안의 수립도 병행하고 있다.

제주시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주민열람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시민은 각 읍면동 및 제주시청 도시계획과(064-728-3511~3515)로 이달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문의·접수하면 된다.

이번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 이후 제주시가 처음으로 입안해 시행하는 것으로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은

제주시 관계자는 “시가지 확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용도지역의 상황을 가급적 지양하고 자투리과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은 정비해 민원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 교통유발부담금 감축활동 ‘눈가리고 아웅’

부제 운행 신청해놓고 안전 자전거 방치 등 위반 적잖아

교통혼잡에 대한 원안자부담 원칙에 입각해 제주도에 대형 사업장에 내년 10월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가운데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을 펴겠다고 신청한 일부 사업장에서 ‘눈가리고 아웅식’ 감축활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제 운행이나 자전거 출퇴근,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등을 통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74개(민간 58, 공공 16)다. 감면액은 16억800만원으로 서귀포시의 총 부과액(45억8200만원)의 35.1%다.

반면 일부에선 이행계획을 신청만 해놓고, 이를 실천하지 않는 위반사항이 확인되고 있다. ‘부제 운행’의 경우 시설물 입구에 불특정다수가 ‘부제 운행 진입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차단봉이나 사람이 진입규제를 실시해야 하지만 일부 시설물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고, ‘자전거 이용’을 하겠다고 한 업체에서 감면수령에 맞게 자전거를 일괄 구입 후 전사용으로만 방치한 채 실제 직원들의 출퇴근에는 이용하지 않는 사례 등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제출 사업장은 이행실태보고서를 매분기 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3분기 이행실적을 제출받은 서귀포시가 수시·정기 점검한 결과 다수의 사업장에서는 감축활동에 적극 나서서

이에 따라 시는 교통량 감축활동 프로그램을 이행중인 사업장을 대상

으로 특별점검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1년의 이행기간(2019년 8월~2020년 7월) 종료후 업체에서 감면을 신청할 경우 증빙자료가 없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구조여서다.

다만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점검기관과 피 점검시설물 사이의 분쟁은 내년 8월 이후 경감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감축활동은 제도 취지에 맞게 신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일부 시설물에서는 신청만 해놓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위반사례가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며 “위법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에 나서서 것은 이행노력만큼 공평한 감면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30일 제주시 용담2동 성화마을회관에서 열린 공항소음민원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이상국기자

공항소음민원센터 문 열다 성화마을 내... 전국 두번째

제주국제공항 인근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센터가 들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제주시 용담2동 성화마을회관 3층에 ‘공항소음민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개소한 공항소음민원센터는 사무실과 상담실, 홍보관, 회의실이 마련됐으며, 공항소음 측정·관측 업무를 실시한다. 또한 소음 피해지역인 삼도2동과 용담1·2동, 도두동, 이호동, 외도동, 애월읍 주민을 대상으로 민원접

수 및 피해상담, 공항 소음 측정 자료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증가하면서 소음피해 지역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공항소음센터 개소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승도 공항소음민원센터장은 “소음피해 지역민의 의견과 요구를 충실하게 듣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공항소음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피해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 서귀포혁신도시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생활SOC사업 공모 선정돼

서귀포시 혁신도시 안에 시 최초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서귀포보건소는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서귀포시 지역에 처음으로 건강생활지원

센터가 건립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대륜동1666-6번지에 건립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4층, 연면적 1348㎡ 규모로 지어질 가정 ‘서귀포시 복합가족센터’ 3-4층(825㎡)에 들어선다. 건물 1-2층은 가족지원센터로 운영된다. 복합

가족센터 건립에는 총 사업비 46억 5500만원(국비 25억3300만원 포함)이 투입된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사회 필요와 요구를 반영, 주민참여와 지역 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 기능 특화 지역보건기관’으로 추진된다. 운동지도사, 영양사가 상주해 주민의 기초체력 측정에서부터 만성질환, 비

만에 따른 운동·영양관리 등 진료기능을 제외한 보건지소 역할을 통해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은 “서귀포시에 처음 설치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맞춤형 특화사업과 건강증진사업을 제공, 정주여건과 건강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감사의 날 행사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와 지역유지분들을 위한 “2019년 벨엘 감사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일시**  
2019년 11월 2일(토) 오전 10:30

**장소**  
장애인거주시설 벨엘 (제주시 한림읍 명월남길 58-1)

사회복지법인 선도원(부설)벨엘  
원장 임 주 리  
T.064-796-6086

## Essential Vegetable Hot Deals

머릿우선만큼 저하가 토마토드립니다!

본 상품은 시세에 따라 급변동될 수 있습니다.

무우 박스(8-10입)	25,500원
배추 1방(3입)	13,500원
대파 1단(8kg)	16,800원
양파 1방(15kg)	10,500원

해당점 : 마트로 3개점(탈동점 756-6900/일동점751-4600/노형점745-7411) 뉴월드마트 1개점(신제주점 745-4600)

## 그랜드보청기

### 가을맞이대축제

방문고객 배터리 25,000원 → 15,000원

삼촌들 혼자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 제주도내 보청기 파격할인!!

- 타사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서비스
- 고급 보청기 1+1(하나더드림 행사)
- 모든 보청기 A/S 및 무료점검 서비스
-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 전세 렌터카

2018. 12. 17. 제23회 소비자의날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 평가 대상 수상

### 4년동안 타던 차를 반납하면

전세보증금처럼 새차 탈때 낸 금액을 100% 돌려 받는 새로운 렌터카 서비스  
당신의 자산과 가치를 지켜주는 카터크의 시차 전세렌터카로 같이타세요!

### 차고지증명제가 필요없습니다

똑같은 자동차 타는 방식으로 자산을 지키세요!

### 개인, 법인 사업자 경비 처리됨

매월 관리비와 기름값으로 품용선 차량을 탈 수 있다.  
주행거리 제한 없는 상품  
우리가족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다. 고객의 신용상태 상관없이 이용가능  
무료정비서비스는 S정비업체 사고처리는 S화재  
4년마다 원하는 신모델 차량을 순환으로 탈 수 있다.  
4년 뒤 보증금 100% 환불

이전 자동차는 소유가 아니라 편리하고 경제적인 사용의 개념으로 보셔야 함.

내가 원하는 국내 수입차 전차종 가능...

- 세금 부담
- 정비 부담
- 보험 부담
- 주행거리 제한
- S보험사
- 정비
- 안정성
- 보험
- 장비업체
- 자금부족

국제로렌터카 WONCAR CTS매니저 박종욱  
010-9104-4742